

#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he Occupation and Activity Nature of the Middle-Aged on Retirement Preparation

신계수, 조성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Gye-Soo Shin(chicluck@paran.com), Sung-Sook Cho(sscho49@hoseo.edu)

### 요약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중년층은 다가올 노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은퇴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은퇴준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30~50대 34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고 건강이 좋을수록 직장에서의 역할이 안정적이고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장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여가활동을 중요시할수록 심리적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의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며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경제적 준비 정도가 높았지만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은퇴준비가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중년층의 은퇴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중심어 : | 중년층 | 직업특성 | 활동특성 | 은퇴준비 |

### Abstract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financial hardship with low birth rate and rapid growing of advanced aged people because low economic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have continued after IMF foreign-exchange cri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the middle-aged people to have well-prepared retirement plan in the sense of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al preparedness. The study intends to find out how the occupation and activity characteristics affect the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al preparation for their remaining old age. For the purpos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44 middle-aged people working in private companies, public offices and small-business owners in metropolitan and Chungcheong provi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y were physically well-prepared, as they thought their leisure activity was more important, their occupational role was more stable and they were old and healthy. Second, Women had notion about their occupation if they kep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And they were psychologically prepared well as they valued their leisure activities. Third, if they perceived their occupations as stable and had more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they were socially well-prepared. Fourth, Although the level of economical preparation depends on their wealth, the occupation and activity characteristics had no effect on the economical prepar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retirement preparation as a recent social issue has been influenced by the nature of occupation and activity and suggest that the definite policy and program will be required for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middle-aged people from various aspects.

■ keyword : | Middle-Aged | Occupation Nature | Activity Nature | Retirement Preparation |

## I. 서론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8년부터는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고령화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준비 없이 오래 사는 장기생존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사망하는 조기사망위험에 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급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현재 31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지속적인 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에 대처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한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종합적 대책도 미약한 실정이며 은퇴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도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한편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는 과거에 비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영혁신과 고용조정 수단으로 퇴직제도가 이용되어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중년층 임금소득자들의 명예퇴직, 강제퇴직 등의 조기 퇴직이 증가되고 있다. 조기 퇴직은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 상실 등의 신체적 문제, 불안과 좌절에서 파생되는 상실감과 박탈감 등의 심리적 문제,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의 참여 기회 축소 등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생활비와 의료비의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기 퇴직의 증가는 은퇴가 임박한 50대~60대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30대~40대에게까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년층은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은퇴준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중년층의 직업 태도, 직업 만족도, 직업 안전성, 직장동료 관계 등의 직업특성과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등의 활동특성이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은퇴준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의 위험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재 중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중년층의 은퇴준비

중년층은 생애주기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중간 단계로 전환의 시기, 위기의 시기, 성숙의 시기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Havighurst(1972)는 생애주기를 여섯 단계로 나누며 중년층을 생애주기 중 대략 30세~60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시기라고 하였다[2]. 김남순(2009)도 중년층을 30세~59세에까지 이르는 시기로 설정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측면에서는 체력의 쇠퇴를 실감하게 되며, 정신적 측면에서는 심한 정서적 갈등과 불안을 겪게 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풍부한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력과 지위에 맞는 경제적 여유가 상승하지만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도 한다고 하였다[3].

한편 중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자녀들의 성장으로 양육부담도 감소하며, 인생의 절정기이며 황금기로 보는 입장이 있으며[4], 긴장과 상실,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는 입장도 있다[5]. 특히 직업인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퇴준비를 하게 된다.

은퇴준비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배계희(1989)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로 분류했으며[6], 황승일(2000)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 준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7]. 성말순(2004)은 노후 준비의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로 설명

하였고[8], 배문조(2006)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9].

연구자들의 은퇴준비의 영역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중년기에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은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준비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10].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는 조사대상자인 20~30대 임금근로자의 50%가 재무적인 은퇴설계를 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기혼자, 전문직 종사자가 높게 나타났다[11]. 경제적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저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모든 노년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준비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준비 정도로 이는 운동, 식생활 관리, 건강검진 등의 꾸준한 노력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적 준비 없이 다른 영역의 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할 수 있다. 임경자(2002)는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여[12], 신체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로 인해 대인관계가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직장동료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실천하는 등의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13]. 이를 위해 정종보·임왕규(2011)은 성공적 노후, 건강관리, 재무, 사회참여, 여가, 노년기 관계망, 긍정적 자아정립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4]. 최근 사회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사회공헌 그리고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인들도 체육활동, TV시청, 음악시청 등의 전통적인 여가활동 외에 경제적 부담이 적은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감과 자아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준비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15].

표 1. 은퇴준비의 영역별 연구결과

은퇴준비 영역	연구자	연구결과
신체적 준비	임경자(2002)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이라고 함
심리적 준비	이정화(2009)	노년기에 다양한 역할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등의 준비가 필요함
사회적 준비	안준희·임경춘·이윤정·김경식(2011)	경제적 부담이 적은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아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함
경제적 준비	김성숙·박운아(1992)	중년기에 수입이 증가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노년기를 맞이함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조사대상자인 20~30대 임금근로자의 50%가 재무적 은퇴설계를 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기혼자, 전문직종사자가 높게 나타남

## 2. 은퇴준비 관련변인

###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퇴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을 많이 언급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이러한 연령의 영향력은 은퇴준비의 각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신체적·심리적 준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적 준비는 자녀교육과 노부모부양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40대보다 20~30대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18].

둘째, 학력은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6][19].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경제적 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고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므로 계획적인 준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판매서비스직·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은퇴준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20]. 이는 직업에 따라 청년연령이 다르고 은퇴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준비를 더 잘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12][39].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으로 활발한 유대관계를 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생활수준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21]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22]가 있는데, 대체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준비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3].

## 2.2 직업특성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상실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일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변화와 위기감이 증가하여 은퇴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24].

사람에게 있어 직업 활동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25], 개인에게 정체감을 심어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업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고독감이나 소외감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연구(Kilty & Behling, 1985)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은퇴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6].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인 연구(Gee & Baillie, 1999)에서는 은퇴 전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른 생활에서도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은퇴를 희망한다고 보았다[27]. Richardson과 Kilty(1992)도 전문직 종사자와 같이 자신의 직업을 선호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28].

직무의 변화가 적고,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연령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은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 안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년연령 이전에 비자발적인 명예퇴직이나 강제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직업 안정성이 낮거나 해직 및 권고사직의 위험을 많이 느낄수록 은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하였으며[24],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회사원에 비해 비교적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은퇴를 미루며 직업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의식이 강하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료와 상의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3 활동특성

사회활동은 개인의 여가활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제할 때, 사회활동은 생산적이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여가활동은 자유와 재미가 포함된 문화적인 것이다[30].

노년기 사회활동은 역할상실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1], 특히 봉사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며,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삶의 기회를 마련해 주며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인한 비활동적인 생활을 예방하는 등의 도움을 준다[32].

여가활동은 은퇴생활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33],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기회의 확대,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 가치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의 영위 등을 도모한다[34]. 따라서

청년기부터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보낸 경험은 은퇴 후의 고독감과 허탈감,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아를 개발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 정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에 대한 은퇴관련 연구에서 두 가지 변수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분석한 국내의 은퇴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향후 중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조기은퇴의 증가로 은퇴라는 사건은 은퇴가 임박한 50~60대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30~40대에게까지도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중년층이 은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기에 준비하는 정도를 밝혀 이를 통하여 은퇴준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경제적 준비는 경제활동기의 제반 여건에 따라 직업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신체적·사회적 준비는 건강과 활동이 수반되는 활동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은퇴준비 영역을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신체적 은

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심리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사회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경제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도구

##### 2.1 직업특성

직업특성은 Richardson와 Kilty(1991)의 '직업 지향성 및 일에 대한 태도'를 배문조(2006)가 수정·변안하여 사용한 연구와 한경혜(1995)의 연구를 토대로 직업태도 4문항, 직업 만족도 4문항, 직업 안정성 4문항, 직장동료 관계 4문항 등 총 16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Cronbach  $\alpha$ 는 .668, .869, .637, .695이다.

##### 2.2 활동특성

활동특성은 Weiss(1974)의 '사회참여척도'를 김수연(1987)이 수정·변안하여 사용한 연구를 토대로 사회활동 7문항, Beard와 Ragheb(1980)의 '여가만족척도'를 김영재(2004)가 수정·변안하여 사용한 연구를 토대로 여가활동 6문항 등 총 13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Cronbach  $\alpha$ 는 .924, .868이다.

##### 2.3 은퇴준비

은퇴준비는 배계희(1988), 황승일(2000), 배문조(2006) 등의 연구를 토대로 신체적 준비 5문항, 심리적 준비 5문항, 사회적 준비 5문항, 경제적 준비 5문항 등 총 2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Cronbach  $\alpha$ 는 .748, .795, .885, .834이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중년층의 은퇴준비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50대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해 20

일간(2011. 4. 11~4. 30)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4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80부였으며, 이중 결측값이 있는 36부를 제외한 총 34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종교 유무, 건강상태, 자녀의 수, 부모부양, 생활수준, 가정의 순자산 규모, 은퇴시기, 재무상당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남성이 165명(48.0%), 여성이 179명(52.0%)이었고, 연령은 30세~34세가 87명(25.3%), 35세~39세가 81명(23.5%), 40세~44세가 84명(24.4%), 45세~49세가 45명(13.1%), 50세 이상이 47명(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56명(74.4%)이 기혼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4명(18.5%), 전문대학 졸업이 68명(19.8%), 대학교 졸업이 165명(48.0%), 대학원 졸업이 47명(13.7%)으로 80%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214명(62.2%), 교사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82명(23.8%), 의료·법률·세무·건축·교수 등의 전문직이 48명(14.0%)이었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133명(38.7%),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113명(32.8%), 600만원~800만원 미만이 63명(18.3%), 800만원 이상이 35명(10.2%)의 분포를 보였다.

표 2.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65(48.0)	건강상태	나쁘다	19( 5.5)	
	여성	179(52.0)		보통이다	150(43.6)	
연령	30~34세	87(25.3)	자녀의 수	좋다	141(41.0)	
	35~39세	81(23.5)		매우 좋다	34( 9.9)	
	40~44세	84(24.4)		없다	99(28.8)	
	45~49세	45(13.1)		1명	67(19.5)	
	50세 이상	47(13.7)		2명 이상	178(51.7)	
결혼 여부	기혼	256(74.4)	부모부양	하지 않는다	245(71.2)	
	미혼	88(25.6)		한다	99(28.8)	
학력	고교 졸업 이하	64(18.5)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39(11.3)	
	전문대학 졸업	68(19.8)		보통이다	258(75.0)	
	대학교 졸업	165(48.0)		잘사는 편이다	47(13.7)	
	대학원 졸업	47(13.7)		가정의 순자산 규모	부채 상태	32( 9.3)
직업	회사원	214(62.2)	1억원 미만		126(36.6)	
	공무원	82(23.8)	1~3억원 미만		80(23.3)	
전문직	48(14.0)	3~5억원 미만	52(15.1)			
가정의 월평균 소득	400만원 미만	133(38.7)	5억원 이상		54(15.7)	
	400~600만원 미만	113(32.8)	은퇴시기	49세 이하	53(15.4)	
	600~800만원 미만	63(18.3)		50~54세	59(17.2)	
	800만원 이상	35(10.2)		55~59세	93(27.0)	
종교 유무	없다	160(46.5)		재무상당	60~64세	108(31.4)
	있다	184(53.5)			65세 이상	31( 9.0)
				하지 않는다	318(92.4)	
				한다	26( 7.6)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84명(53.5%)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160명(46.5%)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었고, 나쁘다는 19명(5.5%), 보통이다는 150명(43.6%), 좋다는 141명(41.0%), 매우 좋다는 34명(9.9%)이 응답하였다. 자녀의 수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99명(28.8%), 1명은 67명(19.5%), 2명 이상은 178명(51.7%)이었으며, 현재 부모(친가, 처가, 시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245명(71.2%), 부양하는 경우는 99명(28.8%)이었다. 또한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어려운 편이다는 39명(11.3%), 보통이다는 258명(75.0%), 잘사는 편이다는 47명(13.7%)이 응답하였고, 가정의 순자산 규모는 부채 상태가 32명(9.3%), 1억원 미만이 126명(36.6%), 1억원~3억원 미만이 80명(23.3%), 3억원~5억원 미만이 52명(15.1%), 5억원 이상이 54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하는 시기는 49세 이하가 53명(15.4%), 50세~54세가 59명(17.2%), 55세~59세가 93명(27.0%), 60세~64세가 108명(31.4%), 65세 이상이

31명(9.0%)으로 40% 이상이 60세 이후에 은퇴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재무상담은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26명(7.6%), 그렇지 않은 경우가 318명(92.4%)로, 조사자들 대부분이 재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재무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개념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다음과 같다.

### 2.1 직업특성

직업특성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16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이 정도의 직업이라면 대체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하고 싶은 정도로 만족하며, 자신의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해 온 것에 대해 만족하거나 현재의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 만족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직장동료들과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부하의 업무를 지원하며,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퇴근 후 식사 혹은 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직장 동료 관계'라고 하였다. 요인 3은 직업이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여기거나 직업이 따분함, 무기력함, 외로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 태도'라고 하였고, 요인 4는 후배들에게 역할을 양보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직업의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61.658%였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직업 만족도'였으며, 요인 분석 과정에서 요인값 0.5 이하인 2문항(직업이 적성에 맞고 장래성이 있어 안정적인 정도,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할 가능성)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직업특성의 4가

지 하위요인의 신뢰계수는 0.637~0.869의 수준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직업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4
직업 만족도	이 정도의 직업이라면 대체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b>.849</b>	.220	.054	.109
	다른 사람에게 현재 나 자신의 직업을 권하고 싶다.	<b>.826</b>	.189	.163	.079
	내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해 온 것에 대해 만족한다.	<b>.784</b>	.169	.090	-.045
	현재의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b>.769</b>	.151	.242	.133
직장 동료 관계	직장동료들과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을 받아들인다.	.156	<b>.767</b>	.184	.175
	상사와 선배의 지시에 잘 따르고 부하와 후배의 업무를 지원한다.	.181	<b>.709</b>	.151	.202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	.206	<b>.692</b>	.159	-.009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식사 또는 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112	<b>.668</b>	-.135	-.024
직업 태도	직업은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된다.	.157	.160	<b>.766</b>	-.124
	직업은 따분함, 무기력함, 외로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071	-.010	<b>.695</b>	.201
	직업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053	.096	<b>.624</b>	-.270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정말 잘 간다.	.401	.073	<b>.600</b>	.229
직업 안정성	후배들에게 역할을 양보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067	.197	-.008	<b>.768</b>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당하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91	.030	-.017	<b>.685</b>
eigen value		3.003	2.231	2.048	1.351
변량 %	전체 변량 : 61.658%	21.449	15.933	14.626	9.650
신뢰 계수		.869	.695	.668	.637

### 2.2 활동특성

활동특성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13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처럼 고유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사회적 모임의 참여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조언과 격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활동'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여가활동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원천이자

생활의 활력소라고 여기고,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을 많이 갖고 싶음은 물론 여가활동이 직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등 여가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여가활동’이라고 명하였다.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65.292%였고, ‘사회활동’이 ‘여가활동’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든 항목의 요인값이 0.5 이상을 나타내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활동특성의 2가지 하위요인의 신뢰계수가 사회활동은 0.924, 여가활동은 0.868로서 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편이었다.

표 4. 활동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사회 활동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b>.844</b>	.193
	사회적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b>.840</b>	.136
	나에게 사회적 모임의 참여는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b>.836</b>	.130
	이러한 사회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b>.832</b>	.216
	사회적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조언과 격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b>.818</b>	.154
	나는 활기찬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b>.811</b>	.114
여가 활동	개인적인 외로움과 따분함이 사회적 모임을 통하여 감소한다.	<b>.727</b>	.174
	여가활동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154	<b>.824</b>
	여가활동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즐거움을 준다.	.194	<b>.798</b>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	.111	<b>.766</b>
	나의 일상생활에서 여가활동은 직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8	<b>.759</b>
	일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기 좋다.	.108	<b>.739</b>
eigen value	여가활동을 통해 시간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151	<b>.689</b>
	전체 변량 : 65.292%	4.804	3.684
변량 %		<b>36.953</b>	<b>28.339</b>
신뢰 계수		.924	.868

### 2.3 은퇴준비

은퇴준비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20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생활에 주의하거나 꾸준한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며, 노후건강과 관련된 서적, TV프로 등을 보거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신체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적 준비’라고 하였다. 요인 2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서로 신뢰하며, 은퇴 후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음은 물론 은퇴를 앞두고 흐트러지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심리적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거나 사회적 모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노후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준비’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은퇴 후 평균 생활비나 자산규모가 얼마정도 일지를 생각해 보거나 노후를 대비해 재테크 또는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66.381%였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사회적 준비’였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값 0.5이하인 4문항(신체적 준비 1항목, 심리적 준비 1항목, 사회적 준비 1항목, 경제적 준비 1항목)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은퇴준비의 4가지 하위요인의 신뢰계수가 0.748~0.885의 수준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은퇴준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4
신체적 준비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평소 식생활에 주의하고 있다.	.164	.100	<b>.835</b>	.117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꾸준한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한다.	.266	.076	<b>.744</b>	.047
	노후건강과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TV프로를 시청한다.	.182	.119	<b>.668</b>	.131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014	.138	<b>.574</b>	.292
심리적 준비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서로 신뢰하고 있다.	.115	.048	.035	<b>.818</b>
	가족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126	.163	.127	<b>.773</b>
	은퇴 후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여러 명이 있다.	.250	.016	.292	<b>.639</b>
	은퇴를 앞두고 흐트러지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225	.260	.387	<b>.541</b>



사회적 준비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861	.083	.124	.199
	사회적 모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840	.113	.155	.093
	노후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827	.127	.253	.120
경제적 준비	노후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사회적 모임에 가입하려고 한다.	.749	.178	.124	.211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정도 필요인지 생각해 본다.	.094	.902	.161	.065
	은퇴 후 나의 자산이 얼마정도 될지 생각해 본다.	.083	.891	.142	.131
신체적 준비	노후를 대비해 재테크 또는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3	.764	.004	.087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	.107	.553	.343	.131
eigen value		3.032	2.709	2.640	2.239
변량 %	전체 변량 : 66.381%	18.951	16.933	16.502	13.995
신뢰 계수		.885	.834	.748	.795

###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인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직업특성의 요인(직업 만족도, 직장동료 관계, 직업 태도, 직업 안정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사회활동, 여가활동)을 독립변수로, 은퇴준비의 요인인 사회적 준비,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1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의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beta=.252$   $t=3.807$ ,  $p<.001$ ), 직업1( $\beta=.306$ ,  $t=5.383$ ,  $p<.001$ ), 직업2( $\beta=.149$ ,  $t=2.759$ ,  $p<.01$ ), 가정의 월평균 소득( $\beta=-.128$ ,  $t=-1.999$ ,  $p<.05$ ), 건강상태( $\beta=.229$   $t=4.531$ ,  $p<.001$ ), 재무상담( $\beta=.127$ ,  $t=2.490$ ,  $p<.05$ )이 신체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무원 혹은 전문

직에 종사하면서 연령이 높은 반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은퇴 대비 재무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생활에 주의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신체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3.1%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beta=.257$   $t=3.797$ ,  $p<.001$ ), 직업1( $\beta=.285$ ,  $t=4.957$ ,  $p<.001$ ), 직업2( $\beta=.146$ ,  $t=2.718$ ,  $p<.01$ ), 건강상태( $\beta=.219$   $t=4.255$ ,  $p<.001$ ), 재무상담( $\beta=.111$ ,  $t=2.167$ ,  $p<.05$ )이 신체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리고 직업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직업 만족도, 직장동료 관계, 직업 태도를 제외하고 직업 안정성( $\beta=.110$ ,  $t=2.138$ ,  $p<.05$ )이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신의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당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역할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중년층일수록 은퇴 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꾸준하게 운동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신체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5.3%로 1단계보다 2.2%( $\Delta R^2=.022$ )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beta=.267$   $t=3.937$ ,  $p<.001$ ), 직업1( $\beta=.282$ ,  $t=4.934$ ,  $p<.001$ ), 직업2( $\beta=.142$ ,  $t=2.662$ ,  $p<.01$ ), 건강상태( $\beta=.203$   $t=3.931$ ,  $p<.001$ ), 재무상담( $\beta=.114$ ,  $t=2.251$ ,  $p<.05$ )이 신체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업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직업 안정성( $\beta=.101$ ,  $t=1.981$ ,  $p<.05$ )이, 활동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여가활동( $\beta=.119$ ,  $t=2.228$ ,  $p<.05$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안정적이고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은퇴 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신체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6.6%로 2단계보다 1.3%( $\Delta R^2=.013$ ) 증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은퇴시기가 임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

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김영채(2007)[35], 전귀연·배문조(2010)[36]의 결과와 일치한다.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신체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 건강과 관련된 계획을 보다 잘 세우고 있다는 Ekerdt·DeViney & Kosloski(1996)[37]의 연구결과와 반대이지만, 건강한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이어서 계획을 잘 세운다는 Kim(1992)[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문조(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데, 직업 안정성이 낮을수록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9].

표 6.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성별 <sup>1)</sup>	.060	1.113	.035	0.632	.033	0.599
연령	.252	3.807***	.257	3.797***	.267	3.937***
결혼 <sup>2)</sup>	-.058	-0.756	-.021	-0.266	-.014	-0.176
학력 <sup>3)</sup>						
-학력1	-.033	-0.514	-.038	-0.594	-.039	-0.614
-학력2	-.066	-0.974	-.064	-0.939	-.072	-1.063
-학력3	-.065	-1.020	-.074	-1.166	-.096	-1.509
직업 <sup>4)</sup>						
-직업1	.306	5.383***	.285	4.957***	.282	4.934***
-직업2	.149	2.759**	.146	2.718**	.142	2.662**
가정의 월평균 소득	-.128	-1.999*	-.103	-1.606	-.103	-1.616
종교 유무 <sup>5)</sup>	.027	0.530	.026	0.506	.027	0.526
건강상태	.229	4.531***	.219	4.255***	.203	3.931***
자녀의 수	-.092	-1.153	-.091	-1.122	-.089	-1.102
부모부양 <sup>6)</sup>	-.050	-0.997	-.047	-0.939	-.046	-0.913
생활수준	.101	1.791	.089	1.543	.084	1.449
가정의 순자산 규모	.060	0.941	.051	0.811	.070	1.095
은퇴시기	-.042	-0.701	-.058	-0.967	-.040	-0.659
재무상담 <sup>7)</sup>	.127	2.490*	.111	2.167*	.114	2.251*
직업 특성						
직업 만족도			.070	1.262	.058	1.028
직장동료 관계			-.078	-1.542	-.075	-1.425
직업 태도			.038	0.740	.011	0.213
직업 안정성			.110	2.138*	.101	1.981*
활동 특성						
사회활동					-.034	-0.627
여가활동					.119	2.228*
F	5.748***		5.156***		5.104***	
R <sup>2</sup>	.231		.253		.266	
ΔR <sup>2</sup>			.022		.013	

\*p<.05, \*\*p<.01, \*\*\*p<.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결혼(기혼=0, 미혼=1), <sup>3)</sup>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0, 학력1(전문대학 졸업)=1, 학력2(대학 졸업)=1, 학력3(대학원 졸업)=1), <sup>4)</sup>직업(회사원=0), 직업1(공무원=1), 직업2(전문직=1), <sup>5)</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6)</sup>부모부양(하지 않는다=0, 한다=1), <sup>7)</sup>재무상담(하지 않는다=0, 한다=1)

### 3.2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심리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심리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리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β=.120, t=2.115, p<.05), 종교 유무(β=.190, t=3.530, p<.001), 건강상태(β=.248, t=4.682, p<.001)가 은퇴를 대비한 심리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이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심리적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심리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5.9%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 유무(β=.184 t=3.448, p<.01), 건강상태(β=.212 t=3.963, p<.001)가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직업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직장동료 관계(β=.157, t=2.994, p<.01)와 직업 태도(β=.107, t=2.003, p<.05)가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을 뿐 아니라 직장 동료의 관계가 좋고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은퇴 후를 대비하여 심리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9.4%로 1단계보다 3.5%(ΔR<sup>2</sup>=.035)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 유무(β=.178, t=3.394, p<.01)와 건강상태(β=.183 t=3.459, p<.01)가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업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직장동료 관계(β=.131, t=2.432, p<.05)가, 활동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여가활동(β=.212, t=3.863, p<.001)이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활동을 중요시할수록 은퇴 후를 대비하여 심리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심리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3.1%로 2단계보다 3.7%(ΔR<sup>2</sup>=.037) 증가하였다.

표 7.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심리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sup>1)</sup>	.120	2.115*	.084	1.459	.083	1.457
	연령	-.062	-0.894	-.076	-1.079	-.046	-0.657
	결혼 <sup>2)</sup>	-.097	-1.207	-.108	-1.344	-.1085	-1.326
	학력 <sup>3)</sup>						
	-학력1	.106	1.595	.124	1.885	.122	1.882
	-학력2	.038	0.531	.045	0.629	.030	0.427
	-학력3	.101	1.526	.093	1.423	.057	0.874
	직업 <sup>4)</sup>						
	-직업1	-.016	-0.272	-.012	-0.202	-.010	-0.168
	-직업2	.012	0.213	.012	0.216	.002	0.043
	가정의 월평균 소득	.010	0.143	.008	0.125	.004	0.054
	종교 유무 <sup>5)</sup>	.190	3.530***	.184	3.448**	.178	3.394**
	건강상태	.248	4.682***	.212	3.963***	.183	3.459**
	자녀의 수	.070	0.838	-.031	0.372	.022	0.265
	부모부양 <sup>6)</sup>	.001	0.024	-.005	-0.096	.001	0.025
	생활수준	.006	0.096	-.014	-0.227	-.029	-0.488
	가정의 순자산 규모	.005	0.070	-.009	-0.137	.028	0.431
은퇴시기	.034	0.550	.025	0.399	.051	0.825	
재무상당 <sup>7)</sup>	-.047	-0.892	-.039	-0.732	-.034	-0.662	
직업 특성	직업 만족도			.074	1.287	.035	0.604
	직장동료 관계			.157	2.994**	.131	2.432*
	직업 태도			.107	2.003*	.046	0.841
	직업 안정성			.023	0.440	.010	0.198
활동 특성	사회활동					.041	0.754
	여가활동					.212	3.863***
F		3.605***		3.678***		4.148***	
R <sup>2</sup>		.159		.194		.231	
$\Delta R^2$				.035		.037	

\* $p<.05$ , \*\* $p<.01$ , \*\*\* $p<.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결혼(기혼=0, 미혼=1), <sup>3)</sup>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0, 학력1(전문대학 졸업)=1, 학력2(대학 졸업)=1, 학력3(대학원 졸업)=1), <sup>4)</sup>직업(회사원=0, 직업1(공무원)=1, 직업2(전문직)=1), <sup>5)</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6)</sup>부모부양(하지 않는다=0, 한다=1), <sup>7)</sup>재무상당(하지 않는다=0, 한다=1)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귀연·배문조(2010)[36], 김지영(2009)[3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보다 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심리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활동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배계희(1989)[6], 임희정(2002)[40], 정애리(2007)[4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심리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유대관계를 넓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은퇴 대비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승아(1998)[42]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여가활동을 중시할수록 심리적 준비

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문조(2006)[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3.3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사회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사회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결혼( $\beta=.233$ ,  $t=2.820$ ,  $p<.01$ ), 학력1( $\beta=-.143$ ,  $t=-2.109$ ,  $p<.05$ ), 건강상태( $\beta=.108$ ,  $t=1.990$ ,  $p<.05$ ), 자녀의 수( $\beta=.243$ ,  $t=2.837$ ,  $p<.01$ ), 은퇴시기( $\beta=.127$ ,  $t=1.975$ ,  $p<.05$ )가 은퇴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이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은퇴에 대비하여 사회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자녀의 수가 많거나 은퇴시기가 늦을수록 노후의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이나 모임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1.4%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결혼( $\beta=.233$ ,  $t=2.820$ ,  $p<.01$ ), 자녀의 수( $\beta=.243$ ,  $t=2.837$ ,  $p<.01$ )가 은퇴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직업특성의 요인 중에서는 직업 만족도와 직업 태도, 직업 안정성을 제외하고 직장동료 관계( $\beta=.147$ ,  $t=3.033$ ,  $p<.01$ )가 사회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미혼이거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거나 노후의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이나 모임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6.1%로 1단계보다 4.7%( $\Delta R^2=.047$ )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결혼( $\beta=.179$ ,  $t=2.618$ ,  $p<.01$ ), 학력1( $\beta=-.121$ ,  $t=-2.160$ ,  $p<.05$ )이, 직업특성의 직업 안정성( $\beta=.094$ ,  $t=2.067$ ,  $p<.05$ )이, 그리고 활동특성의 사회활동

( $\beta=.568, t=11.960, p<.001$ ), 여가활동( $\beta=.103, t=2.166, p<.05$ )이 사회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미혼이거나 학력이 낮으며 자신의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사회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2.2%로 2단계보다 26.1%( $\Delta R^2=.261$ ) 증가하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적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전귀연·배문조(2010)[36],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4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생활에 대한 참여가 빠르고 봉사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가활동을 중시할수록 사회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봉사활동이나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통한 사회적 준비를 보다 잘하고 있다는 배문조(2006)[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8.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사회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sup>1)</sup>	.019	0.322	-.021	-0.354	-.008	-0.173
	연령	-.080	-1.132	-.070	-0.974	.008	0.127
	결혼 <sup>2)</sup>	.233	2.820**	.227	2.770**	.179	2.618**
	학력 <sup>3)</sup>						
	-학력1	-.143	-2.109*	-.116	-1.720	-.121	-2.160*
	-학력2	.025	0.348	.048	0.658	.038	0.633
	-학력3	.039	0.579	.034	0.509	.033	0.578
	직업 <sup>4)</sup>						
	-직업1	-.077	-1.256	-.080	-1.311	-.043	-0.848
	-직업2	.062	1.063	.066	1.166	.044	0.924
활동 특성	가정의 월평균 소득	.021	0.309	.034	0.494	.006	0.104
	중고 유무 <sup>5)</sup>	.029	0.524	.020	0.362	-.024	-0.538
	건강상태	.108	1.990*	.058	1.055	.040	0.866
	자녀의 수	.243	2.837**	.196	2.284*	.124	1.723
	부모부양 <sup>6)</sup>	-.049	-0.903	-.050	-0.944	-.028	-0.625
	생활수준	.074	1.220	.041	0.674	.006	0.124
	가정의 순자산 규모	-.026	-0.388	-.050	-0.744	-.008	-0.141
	은퇴시기	.127	1.975*	.112	1.763	.088	1.654
	재무상담 <sup>7)</sup>	-.020	-0.360	-.020	-0.364	-.029	-0.646
	직업 특성	직업 만족도			.109	1.857*	-.009
직장동료 관계				.079	3.346**	.005	0.096
직업 태도				.070	1.289	-.033	-0.687
직업 안정성				.090	1.658	.094	2.067*
활동 특성	사회활동					.568	11.960**
	여가활동					.103	2.166*
F		2.459**		2.922***		10.094***	

R <sup>2</sup>	.114	.161	.422
$\Delta R^2$		.047	.261

p<.05, p<.01, p<.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결혼(기혼=0, 미혼=1), <sup>3)</sup>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0, 학력1(전문대학 졸업)=1, 학력2(대학 졸업)=1, 학력3(대학원 졸업)=1), <sup>4)</sup>직업(회사원=0, 직업1(공무원=1), 직업2(전문직=1), <sup>5)</sup>중고 유무(없다=0, 있다=1), <sup>6)</sup>부모부양(하지 않는다=0, 한다=1), <sup>7)</sup>재무상담(하지 않는다=0, 한다=1)

3.4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제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결혼( $\beta=-.188, t=-2.411, p<.05$ ), 생활수준( $\beta=.125, t=2.186, p<.05$ ), 가정의 순자산 규모( $\beta=.239, t=3.719, p<.001$ )가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혼이고 생활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가정의 순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은퇴 후의 생활비나 자산,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등에 관심을 갖는 등의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1.1%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혼( $\beta=-.176, t=-2.216, p<.05$ ), 생활수준( $\beta=.120, t=2.022, p<.05$ ), 가정의 순자산 규모( $\beta=.235, t=3.620, p<.001$ )가 은퇴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직업특성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경우 기혼이면서 생활수준이 높고 순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직업 만족도나 직장동료 관계, 직업 안정성 등이 경제적 준비를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1.2%로 1단계보다 0.1%( $\Delta R^2=.001$ )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혼( $\beta=-.176, t=-2.216, p<.05$ ), 생활수준( $\beta=.120, t=2.022, p<.05$ ), 가정의 순자산 규모( $\beta=.235, t=3.620, p<.001$ )가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1.4%로 2단계보다 0.2%( $\Delta R^2=.002$ ) 증가하였다.

미혼보다 기혼이 경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준비도가 높다는 황승일(20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보다 경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Dan(2004)[44], 배문조(2006)[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낮을수록 경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배문조(2006)[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장기생존으로 은퇴생활비와 의료비·간병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직업과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9.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sup>1)</sup>	-.040	-0.732	-.062	-1.081	-.061	-1.063		
	연령	-.111	-1.663	-.119	-1.718	-.113	-1.613		
	결혼 <sup>2)</sup>	-.188	-2.411*	-.176	-2.216*	-.180	-2.250*		
	학력 <sup>3)</sup>								
	-학력1	.022	0.336	.023	0.350	.022	0.343		
	-학력2	-.114	-1.648	-.111	-1.585	-.112	-1.591		
	-학력3	-.071	-1.099	-.076	-1.166	-.076	-1.157		
	직업 <sup>4)</sup>								
	-직업1	-.061	-1.058	-.067	-1.142	-.065	-1.092		
	-직업2	-.089	-1.637	-.092	-1.671	-.094	-1.696		
	가정의 월평균 소득	.065	1.006	.070	1.055	.067	1.020		
	종교 유무 <sup>5)</sup>	.004	0.074	.001	0.020	-.002	-0.042		
	건강상태	.038	0.750	.035	0.656	.033	0.618		
	자녀의 수	.054	0.669	.048	0.576	.043	0.508		
	부모부양 <sup>6)</sup>	.037	0.714	.034	0.650	.035	0.681		
	생활수준	.125	2.186*	.120	2.022*	.117	1.966*		
	가정의 순자산 규모	.239	3.719***	.235	3.620***	.239	3.624***		
은퇴시기	-.019	-0.313	-.026	-0.418	-.027	-0.437			
재무상당 <sup>7)</sup>	.067	1.293	.065	1.244	.064	1.228			
직업 특성	직업 만족도			.028	0.492	.019	0.324		
	직장동료 관계			.015	0.297	.002	0.043		
	직업 태도			.046	0.874	.038	0.685		
	직업 안정성			.034	0.646	.034	0.645		
활동 특성	사회활동					.042	0.757		
	여가활동					.010	0.172		
F	5.100***		4.103***		3.755***				
R <sup>2</sup>	.211		.212		.214				
$\Delta R^2$			.001		.002				

\*p<.05, \*\*p<.01, \*\*\*p<.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결혼(기혼=0, 미혼=1), <sup>3)</sup>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0), 학력1(전문대학 졸업=1), 학력2(대학 졸업=1), 학력3(대학원 졸업=1), <sup>4)</sup>직업(회사원=0), 직업1(공무원=1), 직업2(전문직=1), <sup>5)</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6)</sup>부모부양(하지 않는다=0, 한다=1), <sup>7)</sup>재무상당(하지 않는다=0, 한다=1)

### 3.5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종교 유무( $\beta=.113, t=2.310, p<.05$ ), 건강상태( $\beta=.314, t=6.515, p<.001$ ), 생활수준( $\beta=.161, t=2.994, p<.01$ ), 가정의 순자산 규모( $\beta=.133, t=2.208, p<.05$ )가 은퇴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생활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가정의 순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은퇴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0.3%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 유무( $\beta=.107, t=2.250, p<.05$ ), 건강상태( $\beta=.267, t=5.590, p<.001$ ), 생활수준( $\beta=.126, t=2.354, p<.05$ )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직업특성의 직업 만족도, 직업 안정성, 직장동료 관계를 제외하고 직업 태도( $\beta=.114, t=2.171, p<.05$ )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은퇴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5.6%로 1단계보다 5.3%( $\Delta R^2=.053$ )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직업1( $\beta=.108, t=2.220, p<.05$ ), 건강상태( $\beta=.233, t=5.262, p<.001$ ), 생활수준( $\beta=.097, t=1.974, p<.05$ ), 가정의 순자산 규모( $\beta=.160, t=2.947, p<.05$ )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업특성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특성의 사회활동( $\beta=.284, t=5.876, p<.001$ ), 여가활동( $\beta=.174, t=3.599, p<.001$ )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준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6.3%로 2단계보다 10.7%( $\Delta R^2=.107$ ) 증가하였다.

표 10.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sup>1)</sup>	.078	1.510	.026	0.512	.028	0.593
	연령	.019	0.295	.014	0.216	.076	1.315
	결혼 <sup>2)</sup>	-.044	-0.600	-.040	-0.557	-.057	-0.861
	학력 <sup>3)</sup>						
	-학력1	-.034	-0.567	-.011	-0.180	-.017	-0.307
	-학력2	-.061	-0.940	-.045	-0.702	-.063	-1.086
	-학력3	-.004	-0.061	-.014	-0.243	-.046	-0.848
	직업 <sup>4)</sup>						
	-직업1	.100	1.842	.091	1.711	.108	2.220*
	-직업2	.077	1.499	.079	1.585	.058	1.262
	가정의 월평균 소득	.026	0.426	.013	0.225	.029	0.532
	종교 유무 <sup>5)</sup>	.113	2.310*	.107	2.250*	.081	1.843
	건강상태	.314	6.515***	.267	5.590***	.233	5.262***
	자녀의 수	.131	1.727	-.085	1.127	.043	0.621
	부모부양 <sup>6)</sup>	-.036	-0.743	-.040	-0.854	-.024	-0.566
	생활수준	.161	2.994**	.126	2.354*	.097	1.974*
	가정의 순자산 규모	.133	2.208*	.110	1.875	.160	2.947*
은퇴시기	.045	0.786	.023	0.418	.030	0.592	
재무상담 <sup>7)</sup>	.072	1.496	.070	1.478	.066	1.526	
직업 특성	직업 만족도			.070	1.169	.022	0.391
	직장동료 관계			.099	1.898	.006	0.113
	직업 태도			.114	2.171*	.027	0.532
	직업 안정성			.095	1.921	.101	2.213
활동 특성	사회활동					.284	5.876***
	여가활동					.174	3.599***
F		8.298***		8.422***		11.930***	
R <sup>2</sup>		.303		.356		.463	
$\Delta R^2$				.053		.107	

\* $p<.05$ , \*\* $p<.01$ , \*\*\* $p<.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결혼(기혼=0, 미혼=1), <sup>3)</sup>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0, 학력1(전문대학 졸업)=1, 학력2(대학 졸업)=1, 학력3(대학원 졸업)=1), <sup>4)</sup>직업(회사원=0, 직업1(공무원)=1, 직업2(전문직)=1), <sup>5)</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6)</sup>부모부양(하지 않는다=0, 한다=1), <sup>7)</sup>재무상담(하지 않는다=0, 한다=1)

이상에서 은퇴준비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은퇴준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와 은퇴준비 전체를 하나의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먼저 은퇴준비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요약하면 첫째, 신체적 준비에는 연령,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건강상태, 재무상담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특성의 직업 안정성, 활동특성의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심리적 준비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종교유무, 건강상태와 직업특성의 직장동료 관계, 활동특성의 여가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 준비에는 결혼, 학력, 건강상태, 자녀의 수, 은퇴시기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특성 중 직업 안전성과 직장동료 관계, 활동특성의 모든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준비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혼, 생활수준, 가정의 순자산 규모 등이 영향을 미쳤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 2,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의 요인을 요약하면 종교 유무, 건강상태, 생활수준, 가정의 순자산 규모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특성의 직업 태도, 활동특성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중년층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단계	영역별 은퇴준비				은퇴 준비 전체( $\beta$ )
		신체적 준비( $\beta$ )	심리적 준비( $\beta$ )	사회적 준비( $\beta$ )	경제적 준비( $\beta$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sup>1)</sup>		.120			
	연령	.252				
	결혼 <sup>2)</sup>			.233		-.188
	학력 <sup>3)</sup>					
	-학력1			-.143		
	-학력2					
	-학력3					
	직업 <sup>4)</sup>					
	-직업1	.306				
	-직업2	.149				
	가정의 월평균 소득	-.128				
	종교 유무 <sup>5)</sup>		.190			.113
	건강상태	.229	.248	.108		.314
	자녀의 수			.243		
	부모부양 <sup>6)</sup>					
	생활수준				.125	.161
	가정의 순자산 규모				.239	.133
은퇴시기			.127			
재무상담 <sup>7)</sup>	.127					
직업 특성	직업 만족도					
	직장동료 관계		.157	.079		
	직업 태도		.107			.114
	직업 안정성	.110				
활동 특성	사회활동			.568		.284
	여가활동	.119	.212	.103		.174

\* $p<.05$ , \*\* $p<.01$ , \*\*\* $p<.001$

<sup>1)</sup>성별(남성=0, 여성=1), <sup>2)</sup>결혼(기혼=0, 미혼=1), <sup>3)</sup>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0), 학력1(전문대학 졸업)=1, 학력2(대학 졸업)=1, 학력3(대학원 졸업)=1), <sup>4)</sup>직업(회사원=0, 직업1(공무원)=1, 직업2(전문직)=1), <sup>5)</sup>종교 유무(없다=0, 있다=1), <sup>6)</sup>부모부양(하지 않는다=0, 한다=1), <sup>7)</sup>재무상담(하지 않는다=0, 한다=1)

## V. 결론

중년층은 생애주기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중간 단계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반해 국민연금기금의 부족과 조기 은퇴로 인하여 고령화의 위험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은퇴준비 영역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직업, 연령, 가정의 월평균 소득, 건강상태, 재무상담이, 직업특성의 직업 안정성, 활동특성의 여가활동이 중년층의 신체적 은퇴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연령이 높고 건강이 좋은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어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신체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종교유무, 건강상태가, 직업특성의 직장동료 관계, 직업 태도가, 활동특성의 여가활동이 중년층의 심리적 은퇴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이 양호하고 적극적으로 종교생활과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심리적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동료와 관계가 원만하고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일수록 신체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은 직업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직장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교생활과 여가생활을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혼, 학력, 건강상태, 자녀의 수, 은퇴시기가, 직업특성의 직장동료 관계가, 활동특성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중년층의 사회적 은퇴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혼이면서 학력이 높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건강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므로 은퇴

시기를 늦추면서 사회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현안 문제의 해결에 노사가 의견을 모으고 실행하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사회적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혼, 생활수준, 가정의 순자산 규모가 중년층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혼이면서 생활수준과 가정의 순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은퇴준비가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중년층의 은퇴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아쉬운 점으로는 첫째, 직업을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으로만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은퇴준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차별화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윤석명, 신화연, Hiroshi Yamabana, 김순옥, 김재경, 문채봉,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2] R.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ackay, 1972.
- [3] 김남순,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 E. R. Oetting, G. C. Thornton, Holtzman, and H. Wayne, *Exercises in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Harper & Row, 1968.

- [5] 장하경, 서병숙,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56-168, 1993.
- [6] 배계희,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7] 황승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8] 성말순,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9] 배문조, “개인적 심리적 직업관련 변인이 은퇴기 대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0] 김성숙, 박운아,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 노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3권, 제2호, pp.45-57, 1992.
- [11] 차경옥, 박미연, 김연주,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pp.149-163, 2008.
- [12] 임경자,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이정화,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제20권, 제2호, pp.275-289, 2009.
- [14] 정종보, 임왕규,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35-351, 2011.
- [15] 안준희, 임경춘, 이운정, 김경식, “컴퓨터/인터넷 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406-417, 2011.
- [16] 이행숙, “주부의 노후생활준비의식·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17] 임수민, “직장인의 노후생활준비도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최성재,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2권, 제2호, pp.1-22, 1992.
- [19] 홍숙자, “중년기 여성의 노후설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0] 김문을,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1] 송명숙,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2] 문숙재, 김순미,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pp.1-15, 1997.
- [23] 김성희,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4] D. S. Woodruff and J. E. Birren,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2nd ed)*, California: Brooks/Cole. 1983.
- [25] R. J. Havighurst, *Successful Aging*, 1969.
- [26] K. M. Kilty and J. H. Behling,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The Gerontologist*, Vol.26, No.5, pp.525-530, 1985.
- [27] S. Gee and J. Baillie, “Happil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Vol.25, No.2, pp.109-128, 1999.
- [28] V. Richardson and K. M. Kilty, “Retirement intentions among black professionals: Implications for practice with older black adults,” *The Gerontologist*, Vol.32, No.1, pp.7-16, 1992.
- [29] M. A. Hardy and J. Quadagno, “Satisfaction with early retirement: Making choices in the auto industr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0B, pp.217-228, 1995.

[30] 조추용,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2권, pp.7-34, 2003.

[31] 박경숙, “한국노인의 사회적 연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제34집, 가을호, pp.621-647, 2000.

[32] 김영호,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정책연구, 제15권, pp.227-270, 1999.

[33]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2호, pp.107-122, 2004.

[34] 지승훈,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5] 김영채,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6] 전귀연, 배문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3-24, 2010.

[37] D. J. Ekerdt, S. DeViney, and K. Kosloski, “Profiling plans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1B, pp.140-149, 1996.

[38] M. H. Kim, “Retirement attitudes, preparations, conceptualiz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retirement among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s in mid-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2.

[39]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0] 임희정,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1] 정애리,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2] 이승아,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5호, pp.125-135, 1998.

[43]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3권, 봄호, pp.135-156, 2009.

[44] A. A. Dan, “What are people doing to prepare for retirement? Structural, personal, work, and family predictors of planning,”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04.

**저 자 소 개**

**신 계 수(Gye-Soo Shin)**

정회원



• 1987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2008년 2월 :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노인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과정부 강사  
 <관심분야> : 노인복지, 은퇴설계, 벤처경영, 리더십

**조 성 숙(Sung-Sook Cho)**

정회원



• 1975년 2월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경제학사)  
 • 1984년 2월 :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1987년 2월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금융, 미시경제, 투자, 노인복지